

40. 자궁경부암에서의 Iliopelvic Lymphoscintigraphy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홍성운·임상무

원자력병원 산부인과

박상운·박기복

비뇨생식기 부위의 악성종양에서 림프절에의 전이 여부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방사선 촬영법-림프관조영술, 초음파조영술, 전산화단층촬영-들은 높은 가음성율을 가지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lymphoscintigraphy가 생리적인 검사법으로 림프관조영술에서 접근이 어려운 internal iliac chain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충분한 예민도와 특이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의 성질, 특히 Colloid입자의 크기가 중요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연자들은 ^{99m}Tc -antimony trisulfide colloid를 양쪽 항문주위에 ischiorectal fossa에 도달하도록 주사하여 3시간 뒤에 전면, 후면 및 측면의 영상을 얻어, 이를 임상소견, 전산화단층촬영 소견 및 수술소견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20예중 9예에서 이상소견을 관찰하였으며 이중 3예에서만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이상소견을 관찰하였다.

2) 수술이 시행된 4예에서 3예가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2예에서 수술소견과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iliopelvic lymphoscintigraphy가 비뇨생식기 악성종양의 림프절 전이의 평가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41. 분화성 갑상선암의 방사성옥소 치료 효과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홍성운·임상무

갑상선암중 여포성암이나 유두선암같이 분화가 잘된 갑상선암은 옥소를 섭취하는 기능이 남아있다. 암의 전이가 있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갑상선 절제술 후 갑상선조직이 남아있는 경우 대량의 방사성옥소로 치료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이에대한 관찰은 국외에서는 많이 보고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없다. 저자는 1978년부터 1987년 2월까지 72명의 분화성 갑상선암환자에서 ^{131}I 50~200 mCi를 투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72명중 뼈와 폐등에 전이된 환자 49명은 ^{131}I 200 mCi를 복용하였고 수술후 갑상선조직이 남아있는 18명은 50~150 mCi를 복용하고 주위조직에 전이가 심하여 갑상선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는 175 mCi를 복용하였다.

2) 타장기에 전이가 있었던 49명환자중 33명은 치료후 ^{131}I 전신스캔상 병소가 소실되었고 Thyroglobulin치도 감소 되었으며 임상경과가 호전되었고 9명은 2년내 사망하였고 7명은 악화되었다.

3) 수술후 갑상선조직이 남아있는 18명 환자중 50 mCi를 투여했던 7명은 재발되어 2년내 150 mCi를 재복용하였고 150 mCi를 복용한 11명은 5년현재 모두 갑상선조직이 제거되어 재발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술이 불가능했던 갑상선암 환자는 150 mCi이상의 대량치료로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